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둔 알찬 수확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일시적 혼란 겪어...

문자와 이미지의 조화로 종이책의 새로운 가능성 찾아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올해 우리 출판계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일대 혼란을 겪었다.

e-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온라인 서점의 급격한 성장이 몰고온 정가제

논쟁이 그 구체적인 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도 밀리언셀러가 4종이나 나온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독자집단의 성격이 바뀌면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격문화과 인문서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우리 출판의 고민이다.

올해 우리 출판계를 뒤흔든 사건을 꼽으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첫째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생산시스템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e-북(전자책)의 등장이고, 두번째는 판매시스템의 변화를 몰고 온 온라인 서점의 급격한 시장 확대다. 이런 변화로 파생된 e-북 인세 문제와 2차 저작권 문제가 한여름 우리 출판계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문화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추세가 아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문명사적인 추세다. 그러나 올봄 e-북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 e-북이 수년 내에 종이책의 50~70%를 대체할 것이라거나 e-북의 생산비가 5만원 미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난무하며 곧 e-북 세상이 도래할 것처럼 들떠 있었던 것은 분명 문제였다. 일부 소설가들마저도 이미 시장성이 사라진 자신들의 소설이 디지털 공간으로 장소만 이동하면 명작으로 되살아날 것처럼 착각, e-북의 인세를 50%로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e-북 둘러싼 해프닝과 인터넷 서점의 고속성장

이런 해프닝은 디지털 혁명을 문명사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자본증식의 도구로만 여겼

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은,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새 기술에 완전히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의 혁신을 수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은 놀라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해 종이책을 만드는 오래된 기술을 혁신해 새로운 종이책으로 만들어갈 것이며, e-북은 e-북대로 그 가능성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e-북은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엔터테인먼트성의 파트워크형 정보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공간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북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작가들이 주장한 e-북의 인세율에 대한 논의는 소설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수면 아래로 완전히 잠복했다. 당대 최고의 작가라는 이문열의 e-북 《하늘 길》(에버북)마저 형편없는 판매고를 보였고, 최초의 유가 e-북이라고 떠들썩하게 소개됐던 이순원의 《모텔》(YES24)도 실제 판매가 수백 건에 불과하자 이제는 e-북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출판계를 압도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은 마케팅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아마존의 시스템을 원용한 국내의 온라인 서점들도 인터넷의 특징인 뛰어난 검색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크게 신장했다. 특히 온라인

서점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서점들의 마케팅 포인트인 입지의 중요성을 퇴색케 하면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온라인 서점들은 데이터베이스, 맞춤 서비스, 커뮤니티 등 그 자체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보다 과도한 할인판매 경쟁을 벌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모두가 공정한 룰로 여기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온라인 서점에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책을 출고하지 않아 결국 도서정가제 존폐와 온라인 서점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는 일부 온라인 서점들이 도서정가제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도서정가제 확립 및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인 '전국도서유통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해 일단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도서정가제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알라딘을 비롯한 몇 개의 온라인 서점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은 그대로 남겨놓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4종이나 터진 밀리언셀러

올 독서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밀리언셀러가 4종이나 탄생했다는 점이다. 250만부 이상 팔려나

간 <해리포터> 시리즈(조앤 K. 롤링, 문학수첩), 130만부가 팔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시리즈(정찬용, 사회평론), 1백만부를 눈앞에 둔 <가시고기>(조창인, 밝은세상), 연말까지 1백만부 돌파가 확실해 보이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전3권,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몇 년간 실종됐던 밀리언셀러가 올해에 이렇게 많이 탄생한 것은 주요 일간지들이 경쟁적으로 북 섹션을 발행하며 일제히 베스트셀러 목록을 게재한 것, 온라인 서점들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매일 단위로 업그레이드하며 대폭 할인 판매한 것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는 본격문학서와 인문서의 급격한 침체라는 '그늘'이 있었다. 외국 소설인 <해리포터> 시리즈와 대중소설인 <가시고기> <국화꽃 향기>(김하인, 생각의나무) 등이 독세한 반면, 본격소설로는 올해 최대의 화제작인 <오래된 정원>(황석영, 창작과비평사)이 20만부 가까이 판매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화제작이 없었다. 다만 10월 말에 출간된 <아주 오래된 농담>(박완서, 실천문학사)이 출간 한달만에 10만부를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소설이 해를 넘겨 그 인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독자들이 리더(reader)에서 유저(user)로 변화했다는 분석을 입증하듯, 컴퓨터서적이 대형서점 분야별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등 실용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 대부분의 증경 출판사들이 아동출판에 뛰어들어 아동출판 시장이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 점, 작년에 이어 확실한 시장으로 부상한 경제·경영서 시장이 미국 서적을 경쟁적으로 번역해 출간하는 형편없는 시장으로 전락한 점, 신화 읽기 열풍, <노자와 21세기>(김용욱, 통나무)의 인기가 대변하는 동양학 열풍 등도 올해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들이다.

인문서 시장에 새바람 몰고온 문고본 출간

책 생산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고본 출간이 활기를 띠고, 문자와 이미지가 상생하는 책 제작이 붐을 이뤘다는 것이다. 올해 이미 25권이 출간된 <책세상 문고·우리시대> 시리즈는 철학, 역사, 문학 등 인문학 전반은 물론 자연·응용과학, 문화·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우리 시대의 쟁



올해 우리 출판계는 아날로그 문명과 디지털 문명이 교차하는 단경기의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밀리언셀러가 4종이나 터져 출판시장이 크게 신장했다. 사진은 한국출판유통의 내부 모습.

점'을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번역서만 난무하고 상업적인 출판만이 횡행하는 현실에서 3천9백원이라는 저가의 문고에 담긴 '광범위한 지적 도발'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우리 출판계에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줬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백과사전을 자처하는 <창해ABC북> 시리즈, 베스트셀러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피에르 쌍소)가 속한 <몽문선 현대신서> 시리즈, 20세기를 빛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나는 가상대화를 통해 우리 삶과 디자인의 의미를 되새겨본 디자인하우스의 <대화> 시리즈 등은 <책세상 문고> 시리즈와 더불어 올해 그 가능성을 보여준 문고시리즈들이다. 이 시리즈들은 기존에 출간돼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김영사의 <앗!> 시리즈, 시공사사의 <디스커버리총서>, 문학과지성사의 <문지스펙트럼>, 대원사의 <빛깔 있는 책들>, 다림의 <흔빛문고> 시리즈 등과 더불어 해를 넘겨 개성 있는 문고 시대를 열어갈지 매우 주목된다.

읽고 보고 찾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호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합예술의 경지까지 보여주는 책은 디지털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아날로그 책만의 장점이다. 이미 전 세계 출판은 구어 시대의 '말'이 인쇄술 시대의 '문자'로 바뀔 때 빠져나갔던 부분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복원시켜 이를 평면의 책에 표현한 '새로운 책'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다. 문자와 영상이미지가 상생하

는 이 새로운 책은 촉각에 대한 새로운 주목과 발견이며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찾아낸 또 다른 가능성의 영역이다.

이런 노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책은 사계절의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편찬위원회)다. 모두 15권으로 기획된 이 시리즈는 보통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능동적인 삶이 문자와 이미지의 상생을 통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되살아난, 올해를 대표하는 기획서로 꼽아도 전혀 손색 없는 책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문자와 이미지의 상생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에 집착해 어설픈 편집과 디자인에 의해 이미지가 과도하게 삽입된 책들이 넘쳐나, 오히려 책의 이독성(易讀性)을 저해하는 현상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우리 출판계는 아날로그 문명과 디지털 문명이 교차하는 단경기(端境期)가 불러온 혼란의 양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해였다. 그러나 올해 초에 일었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따른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연말에는 냉정한 수용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년은 좀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